

잠언과 그 저자 강의

김영규 교수

1. 잠언에는 가장 우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기본들과 변화에 대한 적응(계시)가 있습니다.
2. 잠언에는 계시 전체로서 여호와에 대해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3. 잠언에는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4. 잠언에는 정치사회 구조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5. 잠언에는 사회정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6. 잠언에는 의인, 정직한 자, 지혜로운 자와 겸손한 자에 대해 말합니다.
7. 잠언에는 이웃 사랑을 말할 때에도 원수 사랑까지를 말합니다.
8. 잠언에는 구제와 이웃 사랑에 대한 관련성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9. 잠언에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극치인 원수 사랑까지 말합니다.
10. 잠언은 5계명의 일부인 가정에 대해서와 기타 신체의 구조를 통해서 교훈합니다.
11. 잠언은 특별히 마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12. 잠언에는 생활의 지혜에 대하여 폭넓게 진술합니다.
13. 잠언에는 술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1.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기본들과 변화에 대한 적응(계시)도 있습니다.

(1)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는 기본틀들이란, 하나님께서 저자를 영감하실 때, 그 시대와 저자와 관계 속에서 기본틀들을 드러내시고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그 초점들의 성격과 강도가 어떠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들이 갖는 기본틀들이 있고, 또 많이 변화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율법은 기본적인 틀로 언약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무엇을 행하며 거기에 합당히 맺어야 할 열매들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좀 더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아래 택함 바 된 지상에 있는 그러나 하늘에 속한 교회로서 혹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이라는 각 개인들과 가정, 사회와 국가 전체가 어떻게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면서 성령으로 맺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열매들이 무엇이고 또한 그 열매들의 성격들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개인과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섬겨야 될 것인지를 알려주고 또 경건과 거룩한 생활과 연결된 가정과 이웃에 대한 기본 법도와 규례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들, 하나님께서 큰 역사로 시작하여 만들어 내신 그 언약백성들이 당연히 가져야 할 생활태도와 자세로 가정에서의 질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간에 대한 존중과 사랑들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그 법도들을 주시는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거기에 깊이 드러내시는 사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2) 그러나 이 잠언은 이스라엘이 정복시대를 지나 과도기의 혼란을 통과하고 이제 왕제도에 의해 한 민족이 크게 한 국가로 정착되어 변화되어 버린 사회상을 반영합니다. 시편과 독립적으로 있는 이 잠언은 그 시대의 인간성과 사회상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영감의 독특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가시적 교회로서와 국가로서의 성장한 민족과 사회 속에 있는 다양한 인간상과 다양한 사회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 잠언이 지혜와 교훈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주로 선과 악이 구별되고 또 선과 악이 어울리는 다양한 인간상과 다양한 양태들에 초점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큰 변화입니다. 그런 초점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율법의 권위와 가치, 율법의 원리적인 뿌리로서와 또 지혜와 지식의 총체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입과 입술, 귀와 눈, 다른 지체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마음의 선과 악의 양태들, 빈부의 격차와 계급 사회에서 생기는 사회계층 간에 갖는 갈등, 가정질서의 무너짐, 기타 다양한 사회 윤리적 병폐들의 원인과 그 원인에 따른 교훈들이 기록됩니다.

2. 다음은 잠언에서 계시 전체로서 여호와에 대해 말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 잠언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하여 특별한 인식이 드러납니다. 잠언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해서 여호와에게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사람의 지으신 구체적인 내용을 여호와와 소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듣는 귀를 여호와께서 지으셨다(잠20:12)는 것이 사람이 귀로 들은 것을 아신다는 말이요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지기에 들을 수 있는 말로 말씀하실 것을 예시 하십니다. 사람이 보는 눈을 여호와께서 지으셨다는 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을 아시며, 무엇을 볼 것인가도 다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님은 사람이 무엇을 볼 수 있고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도 다 아신다는 말입니다 더구나 눈과 귀를 다 지으시고 각각 들을 지으신 것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또한 특별히 하나님이 사람의 깊은 것을 살피시기 위해 영혼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숨기는 것이 있고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게 행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동물을 보면 그 중심을 들여다 볼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동물에게는 대화의 창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말이 있다는 사실은 사람들 상호간에 마음을 드러다 볼 수 있는 창구가 어느 정도는 생겨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인간의 유기적 총체가 어떤 상태로 발전하고 행동할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창구를 두셨다는 말인데, 그것이 영혼입니다. “물이 비취이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취느니라”(잠27:19), “체홀로 그 미움을 감출지라도 그 악이 회증가운데 드러난다”(잠26:26). 그런 의미에서 잠언기자는 사람의 영혼을 “여호와와 등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가니가 은을, 풀무가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잠17:3).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감찰하시며 또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일으키시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2) 그러나 여호와와 은총에는 일반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압제하는 자가 서로 만나나 그들의 눈을 조명케 하시는 자는 여호와이시다”(잠29:13). “가난한 자와 부자가 서로 만나지만 모든 것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잠22:2)등의 말씀은 선인과 악인에게 같은 은총이 있다는 일반 은총에 대한 교훈입니다.

(3) 이와 같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기본 사상은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이 그의 속성으로 하신 일로서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와 분리할 수 없는 것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음부와 지옥이 여호와 앞에 있거든 사람의 아들의 마음이야 어떠하겠는가?(잠15:11) 여기서 사람의 마음과 음부와 지옥이 여호와 앞에 있다는 말씀은 여호와와 전지전능성을 뜻합니다. “선인과 악인을 감찰하시는 여호와의 눈은 모든 곳에 있다”(잠15:4)는 편재성입니다. 이런 말씀과 결합된 것으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지으셨나니, 악인도 역시 악한 날을 위해서 지으셨다”(잠16:4)는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지으셨나니’ 라는 말은 여호와와 일, 혹은 여호와와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문맥상 좁게 ‘지으시다’ 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은 창조와 섭리가 서로 구분이 되지 않은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은 악이나 악 자체도 하나님 자신의 선하신 목적을 가지고 지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하신다는 중요한 인식이 숨어 있습니다. 따라서 음부나 지옥도 하나님의 지으신 온갖 것에 속해 있다면, 우리는 악의 원인에 대해 전혀 다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여호와와 기뻐하신 뜻에 따라 자신의 목적을 가진다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잠언기자는 “사람의 길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된다”(잠16:7, 한글성경 잠16:8) 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잠언기자에 따르면 원수와의 화목, 원수에 대한 사랑도 여호와와 기뻐하심에 그 원인이 있다는 말이요 악에 관한 모든 것도 여호와와 뜻 안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즉 우리에게 환난이 있고 악한 일이 가로막혔어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너는 악을 갚겠다고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리라”(잠20:22).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잠27:1) 가 우리에게 현실에 해당된 말씀입니다.

(4) 이와 비슷하게 여호와와 기뻐하신 뜻과 관련된 여러 가지 표현들이 관찰됩니다.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그의 모든 판단은 여호와께로부터 온다”(잠16:33), “주권자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판단은 여호와께로 맡기암느니라”(잠29:26), “사람의 마음에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 뜻이 이를 이루신다”(잠19:21),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해도 여호와께서 그 걸음을 인도하신다”(잠16:9), “싸울 날을 위해서 마병이 예비되어 있으나 구원은 여호와께 있느니라”(잠21:31), “왕의 마음은 여호와 의 손에 있는 물의 도관이니 그가 원하는 임의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방향으로 기운다”(잠21:1)는 말씀 등이 우리를 위한 기록들입니다. 이런 내용들, 즉 하나님 말씀의 뜻은 사람에게 감추어져 있고(잠20:24) 사람이 헤아릴 수 없다(잠25:2)고 함으로 사람에게서 단순한 도구적인 성격을 없애고 있습니다.

(5) 결론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되는 생명의 샘이요(잠14:27) 여호와 경외로 악에서 떠나게 되고(잠16:6)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잠19:23).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날과 해를 길게 하는 것이요(잠10:27),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는 높아지고(잠29:15) 그 경외하며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잠16:20).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안에 견고한 신뢰가 있고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다”(잠14:26),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완전함을 얻는다”(잠18:10),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 가난한 것이 크고 부하여 그 안에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잠15:16)고 하였습니다.

전도서에서와 같이 잠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하였습니다(잠9:10). 이런 지혜의 인격화와 지혜의 실체화(잠8:1-36, 9:1-6, 11-12)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조명하시는 분이시요,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는 분이시며, 그리스도 안에는 진리와 의, 명철, 참 지식, 능력이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권세자들을 다스리십니다. 그와 같은 사실을 넘어서 그리스도께서는 만세전에 여호와와 더불어 계셨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역시 창조자로서 섭리하시면서 날마다 기뻐하시고 계시는 중에 있으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도 그리스도께서는 큰 잔치를 베풀어 초대하시는 분과 같으십니다.

(6) 잠언에서 여호와와 창조와 여호와와 섭리 및 여호와 경외에 대한 이해가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창조론이나 섭리론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열왕기상의 기자는 왜 솔로몬의 왕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단(왕상11:4)고 하는가? 그 열왕기상의 기자는 솔로몬의 역사와 관련하여 모세가 예언한 말씀(출34:16, 신7:3,4)이 이루어졌다(왕상11:2)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방인들과 결혼 금지의 가장 큰 이유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으로 인하여 가만히 우상숭배가 들어와서 스스로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기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고 또한 이후에 보게 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생의 도와 방패로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지켜야 한다고 교훈하였지만 실제로 잠언에서는 우상숭배에 대해서 경고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잠언서의 결점입니다. 또 잠언에는 십계명의 전체에 대한 강조가 없습니다. 이것을 아마 열왕기상의 기자가 그의 문제점을 비판하여 이제 지적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이 결정적인 문제점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분단의 아픔과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가 시작되고 있습니다(왕상11:11-13).

3. 그 다음으로 잠언에는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1) 잠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의 표현과 같이 자체 속성을 가지고 있는 생의 도, 규범, 경계(잠15:31)를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의 방패(잠30:5)로 이해합니다.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전하며(잠30:5)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이 강조됩니다(잠30:6, 신4:1-2, 12:32, 13:1-18).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운 계시를 포함하는지는 불확실합니다. 어느 경우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하나님의 권위와 일치한 것입니다(cf, 잠30:5).

(2)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 율법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단순히 그 결과로 악인을 대적하고(잠28:4), 자신의 영혼을 지키는 정도(잠19:16)가 아니라 복을 얻는다(잠13:13, 16:20, 29:18)는 사실이 표현됩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패망하고 하나님의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는다(잠13:13, 15:10)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3) 물론 잠언기자의 시대에도 선지자들의 계시가 율법과 함께 새로운 계시가 사회를 움직이는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잠29:18).

4. 잠언서에서는 정치사회 구조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1)솔로몬의 생전에는 그 앞에서 모셔 함께 의논했던 장로들이 있었습니다(왕상12:6).

이 장로들이 아마 르호보암에게 하듯이(왕상12:7) 솔로몬에게 어진 왕에 대해서 의논할 때, “왕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면 백성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라고 교훈 하였으리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고금을 통하여 보여졌던 민주주의보다 훨씬 더 나은 사상 체계를 장로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통치자가 백성의 종이 되어 섬기라는 교훈은 민주주의에서도 이루지 못한 사상입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장로들을 곁에 두고 어그러짐이 없이 의논하며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사실은 아내들을 통해 나타난 문제들과 거기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우상숭배에 대한 결정적인 문제점을 제외하고는 솔로몬의 어진 행적으로 높이 살만합니다. 아마 솔로몬의 잠언의 지혜는 이와 같은 장로들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솔로몬의 잠언의 지혜가 실제로 모략과 모사를 적극 평가하고 있습니다. 즉 솔로몬은 ‘모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지만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다’(잠11:14).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을 세운다’(잠15:22).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찌니라’(잠20:18). 너는 모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모사가 많음에 있느니라’(잠24:6)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 당시에 장로들의 자문을 솔로몬이 잘 들었다는 사실은 의로운 입술을 기뻐하였고 정직히 말하는 자는 사랑을 입는다(잠16:12-13)는 말씀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역시 왕이 공의로 말미암아 자신의 보좌를 굳게 세우고(잠16:12, 29:4) 선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무너지며(잠29:4) 가난한 자를 진리로 판단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다’고 하였습니다(잠29:14).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로 인자와 진리가 왕을 지키고 그 왕위도 인자함으로 말미암아 견고히 된다는 말이 됩니다(잠22:29).

(2)이런 어진마음과 달리 솔로몬은 왕의 권세와 왕의 권위를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왕의 노함은 살육의 사자의 부르짖음과 같고(잠12:14,20:2,8), 그 왕의 희색과 운택은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고 풀 위에 이슬과 같다고 하였습니다(잠12:15,19:12). 즉 어떤 의미에서 왕은 생사화복의 권세를 가졌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재판에서 왕의 입에는 신언이 있어 그릇됨이 없다고 하였습니다(잠16:10). 즉 재판에서 왕의 신적인 선언에서는 솔로몬이 왕의 무오성을 주장한 셈이 됩니다. 솔로몬은 역시 심판 자리에 앉은 지혜로운 왕은 그의 눈으로 모든 악들을 흠여지게 하고 한편으로는 악인들을 키질하기로 한다(잠20:8,26)고 말했습니다.솔로몬은 여호와와 함께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사귀지 말라고 교훈합니다(잠24:21).

(3)신하(종)나 사자에게는 충성되고 슬기로우음을 요구합니다(잠13:17,14:35,25:13). 솔로몬도 예수님의 교훈과 같이, 왕 앞에 스스로 높은 체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잠25:7). 이런 권세 때문에 왕의 지혜로 공의를 구하고 그런 목적으로 세웠지만 다른 한편 왕의 지혜가 오히려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메우게 했습니다(왕상12:4)

(4)이스라엘의 정치사회 구조에는 왕과 신하, 왕과 사신사이에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밖에는 다스리는 자와 하인, 치리자나 주인 혹은 상전과 종의 구조가 있었습니다. 즉 ‘공직자가 재판할 때 상대방의 낮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않다(잠24:23, 28:21).비록 뇌물은 임자의 보기에 보석 같은 즉 어디를 향하든지 형통케 하지만(잠17:8),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은 옳지 않다(잠28:21).언제든지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간곤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해야 한다(잠31:9)’는 등의 말씀이 있습니다.

5. 잠언서는 사회정의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사람들의 생업이나 사람들 상호 경제 관계에 있어서 사회정의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가치척도가 되는 저울과 밀접히 관계해 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일찍부터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화폐를 통한 공동경제 생활이 발달되어 있었습니다.또 고대 근동에서는 공동경제생활과 함께 도량제도(度量制度)가 발달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옛 이스라엘의 경제 생활도 이에 대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때에도 저울의 표준치가 중요해서 성전에 대개 공동 표준치를 보관하여 저울의 척도에 공정을 기하였고 재판하는 일도 많은 경우에 성전 앞에서 이루어졌었습니다. 또 고대 근동에서는 일찍부터 공공 혹은 개인문서의 한부가 성전에 보관되어 개

인과 개인사이 혹은 공공기관과 개인 사이에 객관을 기했고 문서의 위조를 방지해왔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에도 이에 대해 언급하기를 “**공정한 간청과 혈청은 여호와께 속해있고 모든 주머니(속에 있는)추돌들을 그가 만드신 것들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잠16:11) 솔로몬의 잠언에도 공의로운 상업거래의 기준치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여호와와의 이름으로 표준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속임의 혈청은 여호와와의 혐오함이요 완전한(정확한) 추돌을 여호와가 기뻐하신다**”(잠11:1,20:23)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혈청이나 추돌은 고대 근동의 경제생활에서 매우 중요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날 우리가 돈을 지불하다는 말은 이미 오래전부터 “은(금,동) 및 세겔을 달아준다”(창23:16, 출22:16) 는 말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거래하는 데 사용되었던 통용의 은세겔은 그 당시의 시장이나 상인들의 은세겔이었습니다(cf 창23:16).

그러나 모세 시대에와서는 그런 가치 기준의 은을 사용하지 않고 여호와와의 이름으로 표준된 측량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모든 가치방법에 대해서“거룩한 세겔로”(출30:13,23-24,레5:15,27:3-25,민3:47,50, 7:13,19,25,31,37,43,49,55,61,67,73,79,85-6,18:16) 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여호와와의 율법이 다윗시대에 와서 다시 정당하게 지켜지기 시작하였다면, 그 근본정신이 처음 잠언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인륜관계는 하나님의 계시의 법에 의해서 기준되었다는 사실과 함께 측량치의 기준을 여호와와의 이름과 그 권위로 정해졌다는 사실이 또 한편으로는 중요한 것입니다.

(2) 우리는 그 시대의 일반적인 부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릴 수 있습니다. 부의축적 방식에 관해서서 잠언기자는 “무로부터 온 재물”(망령되어 얻은 재물 -한글)을 “손으로 모은 것” 사이를 대조시킵니다(잠13:11). 전자의 경우는 그 재물이 적어지는 게 특징이고 후자의 경우 많아지는 게 특징입니다. 이런 것은 분명히 근면과 관련되면서도 부의 축적방식에서 도덕적 가치를 부여합니다. 잠언기자는 분명히 부를 추구하되 근면하고 부지런하여 얻는 부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부지런한 손은 부하게 만들고 다스리나 게으른 행위는 가난하게 만들고 부역에 종사한다(잠10:4,12:24)고 했고 부지런함 자체가 사람의 귀한 재물(잠12:27)이라 했습니다. 초기 이스라엘의 역사는 뚜렷한 전쟁으로 부역하게 되는 일이 강조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스라엘 초기 역사는 게으름으로 인하여 빈궁과 궁핍이 빨리 오고(잠24:33-34) 다른 사람의 부림을 받으며 구걸하는 등 빈부의 격차에 대해서만 언급합니다. 그러기에 실제에서 솔로몬의 잠언에서는 그만큼 평화의 시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의 기자는 게으른 자들의 특성들에 대해서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을 깊이 잠들게 한(잠19:15) 것처럼 잠자기 좋아하고(잠20:13,24:34), 침상에서 게으른 자가 꾸물꾸물함이 문짝이 돌쩌귀를 따라 도는 것과 같고,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고 하였습니다(잠19:24,26:14-15).

또 한편으로는 게으른 자들에게는 핑계도 많다고 하였습니다(잠22:13, 26:13). 게으른 자의 산업에 대한 묘사는 사냥할 기회에 사냥하지 않고(잠12:27), 밭과 포도원에 가시덤불과 거친 풀이 덮힌채로 있고 무너진 돌담을 고치지 않는 것(잠24:30-31), 시기에 알맞게 행하지 않는 것(잠20:4, cf, 잠12:11, 28:19) 등을 실제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로는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인다(잠21:25)거나 방탕을 좇는 자(잠28:19)이거나, 불의로 가산을 탕패하는데 있다는 사실(잠13:23)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렇게 잠언의 교훈에서 연락과 소비를 좋아하는 사람은 부하게 되는 일이 없다고 말하는 자본주의 기본원칙은 성경에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잠21:17)

(3) 이렇게 솔로몬의 잠언서에서는 빈부의 격차의 원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잠언서에서는 빈부의 현상에 대해서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빈부의 격차(잠22:7)에 대한 원인이 순수히 그 사람들 자신들의 원인에 기초한다는 시대상에서는 소위 희년제도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자연 발생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시대상과 비교하면 모세오경의 희년제도는 이상적인 나라의 제도로 주어졌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의 잠언에서는 그런 빈부격차의 원인에 대해서 가르칠 뿐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사회적 상호 관계도 언급하고 있습니다(잠22:7).

(4) 그러나 잠언서는 부나 재물 자체를 부정적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재물이 사람의 생명을 속할 수 있고(잠13:8) 부자는 친구가 많다(잠14:20,19:4). 부하게 되는 일도 과도히 아껴서 되는 것이 아니고(잠11:24) 구제를 많이 하는 자가 부하게 되는 일도 있으며(잠11:24-26,28:27) 실제로 가난하면서 스스로 높은 체하

거나(선비사상) 스스로 부한 체하는 일(잠12:9,13:7,22:16)에 대해서도 비판적입니다. 더 강력한 비판으로는 노력없이 속히 부하고자 하는 사람이 곧 중한 변리로 재산을 증식하는 사람을 향해서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잠20:21,21:5,28:8,28:22). 이렇게 잠언은 부나 재물 자체에 부정적이라기 보다는 가치기준을 더 높는데 돕니다. 재물은 허무요 영원하지 않다고 보고(잠23:5,27:24) 자족을 권합니다(잠13:8,23:4).

그러므로 거짓으로 부하게 되는 것보다 가난한 것이 낫고(잠19:22)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사람이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사람이나 사곡히 행하는 부자보다 낫다(잠19:1,28:6)는 사실에 잠언서의 초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잠언서는 가식적인 선비사상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있지만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고 은이나 금보다 주의 은총을 더욱 더 택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잠22:1). 이와 같이 잠언의 교훈은 빈부 자체보다 주의 은총으로 된 덕을 앞세웁니다.

(5) 그러나 솔로몬은 인사 관계의 기준을 사람의 덕에 기초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즉 솔로몬 왕이 여로보암을 등극시킬 때에도 그가 큰 용사요 그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관직에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왕상11:28). 그러나 결과적으로 열왕기상의 기자는 솔로몬의 지혜가 선지자(아히야)의 계시에는 미치지 못한 사실을 실제로 지적한 셈이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에서는 선지자 아히야의 등극자체가 이미 솔로몬의 죄를 벌하기 위해 준비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왕상11:11,32-39).

6. 잠언에서는 의인, 정직한 자, 지혜로운 자와 겸손한 자에 대해 말합니다.

잠언에서는 이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의 덕목들에 대해 크게 강조합니다. 이런 덕목을 가진 자들과 대조하여 악인, 포악한 자, 폐역한 자, 미련한 자, 교만하고 오만하며 거만한 자들이 있고 이스라엘 사회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1) 먼저는 의인이나 정직한 자는 어떠한가?입니다. 그 입과 입술이 생명 샘이요(잠10:11), 여럿을 교육하고(잠10:21) 지혜를 내며(잠10:31) 기쁘게 할 것을 알고(잠10:32) 사람을 구하는(잠12:6) 천은 같습니다(잠10:20) 그의 소원도 선하고(잠11:23), 생각이 공직하여(잠12:5) 거짓을 미워하며(잠13:5), 그의 행위를 삼가되(잠21:29) 그의 마음으로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합니다(잠15:28). 그 신자 안에 인자와 진리가 있고(잠14:22) 그 신자가 노래하고 기뻐합니다(잠29:6).

그 신자의 행위도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어(잠29:7) 아끼지 않고 시제하며(잠21:26) 그 의인은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고(잠12:10) 일곱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만큼(잠24:16) 어떤 일에서나 믿음으로 살며 개의치 않아 사자같이 담대합니다(잠28:1) 그래서 서있는 의인의 집(잠12:7)이 영원한 기초와 같고(잠10:25)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여(잠11:28) 영원히 요동치 않고(잠10:30) 그 뿌리가 움직이지 않아(잠12:3) 그 길은 곧고(잠11:5) 그가 받을 상은 확실하며(잠11:18) 생명나무와 같이(잠11:30)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합니다(잠12:12).

의인은 이 세상에서도 선한 보응을 받고(잠11:31,13:21) 지식으로(잠11:9) 자신과 자손 대대에까지도(잠11:21,13:22) 환난에서 구원을 얻습니다(잠11:8,12:13). 불의자도 그 앞에 엎드리고(잠14:19) 의인에게 아무 재앙도 임하지 않습니다(잠12:21) 또한 의인은 그가 원하는 소망이 이루어져 즐거워할 것입니다(잠10:24,28). 이는 여호와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잠15:29)주리지 않게 하시기 때문입니다(잠10:3) 정직한 자에게 임한 복은 여호와와의 교통하시는 의논이 있다는 게 특별합니다(잠3:32). 의인은 죽음에서도 소망이 있어(잠14:32) 의인을 기념할 때면 그를 칭찬하고(잠10:7)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며(잠13:9) 의인은 그 이웃의 인도자가 됩니다(잠12:26). 이런 의인이 그 나라에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잠29:2) 의인이 득의하면 큰 영화가 있으며(잠28:12)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기뻐합니다(잠11:10). 따라서 의인을 벌하고, 정직하다고 의인을 때리며, 재판시 의인을 억울케 하는 것은 선치 못하다(잠17:26, 18:5) 까지입니다.

(2) 다음에는 그 반대로 악인의 경우는 어떠한가? 입니다. 악인의 경우는 악한 일에 신체의 모든 기관이 동원됩니다. 악인은 껄흠한 입을 벌리고,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고, 손가락질로 알게 하고, 마음으로 폐역을 품고, 다툼을 일으킵니다(잠6:12-14).악인은 입에 독을 머금고(잠10:6,11),패역을 말하며(잠10:31,32), 궤사한 입술의 말을 들어(잠17:4) 궤홀을 도모하고(잠12:5), 옛보아 피를 흘리자 하며(잠12:6), 이웃을 망하게 합니다(잠11:9). 악인들은 죄악을 삼키며(잠19:28) 악을 쏟습니다(잠15:28). 악인은 마음으로

남의 재앙을 원하고(잠21:10) 불의의 이를 탐하며(잠12:12) 공의를 깨닫지 못합니다(잠28:5).

행위는 흉악해(잠13:6, 얼굴을 굳히고(잠21:29),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히며(잠17:23),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줄 지식이 없고(잠29:7), 긍휼이 있어도 잔인합니다(잠12:10). 결국 악인의 소득은 죄에 이릅니다(잠10:16). 사회도 악인들이 많아지면 죄가 많아지고(잠29:16) 악인들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들이 탄식하며(잠29:2) 악인들이 일어나 득세하면 사람이 숨습니다(잠28:12,18).

그러나 악인들은 세상에서 보응을 받아(잠11:31) 스스로 올무가 되며(잠29:6) 자신들의 허물로 인해 그물에 걸려(잠12:13) 그 악으로 인해 넘어집니다(잠11:5). 그 악인들에게는 재앙과(잠13:21,24:16) 환난에 넘어지고(잠14:32,21:12) 양화가 가득합니다(잠12:21).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고(잠15:6), 선인 앞에 엎드려지며(잠14:19) 그의 보물(곡간,창고)은 유익치 못하여(잠10:2) 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해 쌓이며(잠13:22), 그의 등불이 꺼져(잠13:9) 부끄럼에 이르고(잠13:5), 배는 주리며(잠13:25), 멸시와 능욕이 따릅니다(잠18:3). 악인은 연세가 짧게(잠10:27) 사망하여(잠11:19) 소멸되며(잠10:25,12:7) 소망이 끊어져(잠10:28, 11:7,23) 땅에 거하지 못하며(잠10:30), 이름이 썩습니다(잠10:7).

(3) 그 다음에 지혜로운 자, 명철한 자, 슬기로운 자의 경우는 어떠한가?입니다.

선인들은 명령과 경계를 받고(잠10:8,15:5) 권고나 권계를 듣고(잠12:13,13:10) 훈계를 좋아하며(잠12:1,19:20,21:11), 유책으로 지식을 얻는 자들입니다(잠19:25). 그 선인들은 잠잠히(잠11:12) 지식을 감추어 두고(잠12:23) 깊은 물에서와 같이(잠18:4) 모락을 길러내며(잠20:5), 그들의 입에는 마음으로부터 나온 지식(잠16:23)과 지혜가 있어서(잠10:13, cf 17:24) 지식을 선히 베풀고(잠15:2) 지식을 전파하며(잠15:7) 스스로 보존한다(잠14:3). 그들은 마음(잠15:14)과 귀로 지식을 구하며(잠18:15), 지식을 간직하여(잠10:14) 마음에 지혜가 머물게 하며(잠14:33, cf 16:21) 자기 길을 알고(잠14:8) 두려워하여 악에서 떠나며(잠14:16),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습니다(잠14:18). 그들은 수옥을 참고(잠12:16) 행동을 삼가며(잠14:15) 재앙을 보면 스스로 피하며(잠22:3, 27:12). 가정에서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잠10:1, 15:20). 사회에서도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고 그런 자와 동행하면 그 사람도 지혜를 얻으며(잠13:20), 그 지혜자의 교훈과 명철은 생명의 샘으로(잠13:14,16:22), 사망의 그물을 벗어나게 하고(잠13:14) 그 아래 있는 음부를 떠나게 합니다(잠15:24).

(4) 끝으로 지혜자와 반대로 미련하고 지혜 없는 자의 경우는 어떠한가?입니다.

지혜 없는 자는 짐승같이 징계를 싫어하고(잠12:1) 꾸지람을 즐겨듣지 않으며(잠13:1) 훈계와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기고(잠15:5,23:9) 명철을 기뻐하지 않습니다(잠18:2). 지혜 없는 자는 속에 있는 것을 속히 나타내(잠12:16,14:33,29:11) 입으로 미련한 것을 쏟고(잠13:16,15:2) 즐깁니다(잠15:14,21). 따라서 입술에 지식이 없어(잠14:7) 불의의 말을 하고(잠17:7)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하며(잠18:2) 다툼을 일으키며(잠18:6, 20:3). 마음이 정함이 없고(잠15:7) 미련한 것을 전파하고(잠12:23), 어리석음에 속아(잠14:8) 악에서 떠나기 싫어하고(잠13:19) 방자해 스스로 믿고(잠14:16, 28:26) 자기 행위를 바른 줄 여겨서(잠12:15) 어리석음을 기업으로 삼습니다(잠14:18).

지혜 없는 자는 그의 무지로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살려고는 합니다(잠17:16). 성경의 교훈은 진리나 지혜, 훈계와 명철을 사고서 팔지는 말라(잠23:23)는 교훈이 있을지라도 이 말씀에서 사고 판다는 것은 앞서와 같은 의미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은 사고 팔 수 없는 것이며 다만 비유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지혜 없는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서(잠14:9) 행악으로 낙을 삼습니다(잠10:23). 가정에서 미련한 아들은 아버지와 어미를 근심케 하고(잠10:1,17:21,25) 어미를 업신여깁니다(잠15:20). 사회에서도 미련한 아들은 스스로 높은 체하며(잠30:32) 이웃을 무시하며(잠11:12), 거짓 증인이 되어 온갖 말을 자기가 믿은 대로 뱉습니다(잠14:15). 미련한 자는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찧을지라도 그의 미련이 벗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잠27:22). 그래서 그의 입이 매를 자청하고(잠14:3,33), 그 미련이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됩니다(잠18:7).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잠10:21) 등에 채찍이 있는 경우도 있고(잠19:29) 궁핍과 수욕(잠13:18), 재앙(잠10:8,10)으로 해를 당합니다(잠10:21,18:7,22:3,27:12).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진리를 사고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러할지니라’**는 말씀에 있습니다(잠23:23).

7. 잠언에서는 이웃 사랑을 말할 때에도 원수 사랑까지를 말합니다.

(1) 이웃 사랑은 그 수행 과정에서 “**허다한 죄를 가리운다**”도 유기적입니다(잠10:12).

개혁된 교회에서는 권징까지도 사랑의 시행으로 있다면, 교회는 권징시행을 연기할 수도 있고, 또 시행 과정에서 ‘당신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권고하면서 권징하는 것이요, 또 그 신자가 회개하여서 회복하면 모든 면에서 회복시켜야 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 사실을 다시 정죄하면, 이것 또한 알미니우스적 방식인 것입니다. 권징이 최고한 수준으로 시행될 때도 그 사람의 ‘영혼이 사느냐’가 최대의 관건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네 손이 행할만한 힘이 있을 때, 선을 아끼지 말라**”(잠3:27)와 “**너는 네 이웃에게 갔다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고 말하지 말라(잠3:28) 등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자가 ‘하나님처럼 주는 자로 있으라’는 명령이 될 것입니다. 또 ‘**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 그러면 그가 네 곁에 완전하게 거하리라**’(잠3:29)는 말씀들은 사실에 있어서는 ‘네 이웃이 네 곁에 살도록 그냥 두라’입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 빠지며 돌을 굴리는 자는 그 돌에 치이리라**’(잠26:27)는 말씀도 ‘악행자의 악행이 부패랑처럼 자기에게 해악으로 되돌아 온다’는 경고입니다.

(2) 이웃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명령으로는 “**도둑질하지 말라**”가 있습니다.

사회에서의 악행은 조직적인 도둑행위인 이익을 탐한다는 사실을 통해 잘 알려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둑들의 무리는 단순한 연합체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조합 체제입니다. 첫째로 그 도둑들은 이익을 분배합니다. 둘째로 그 도둑들의 분배 방식은 평등합니다. 셋째로 그 도둑들에게는 이익 창구가 일원화되어서 집행합니다. 넷째로 그 도둑들의 행동 방식은 살인도 할 만큼 대담하고 은밀한 계략이 있습니다. 이런 조직적 도둑행위나 악행들은 놀랍게도 그때나 오늘날도 전혀 변한 게 없습니다. 잠언은 이런 행위, 즉 ‘이익을 탐하는 일’(잠1:19)에 대해서는 ‘어리석고 거만을 즐기는 일이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참 지식을 미워하는 일이요(잠1:22), 자기 꾀에 배불려 넘어서도 깨닫지 못한다’고 비판합니다(잠1:31, 4:19, 5:6,22, 6:2). 이런 일은 ‘강포의 술을 마시는 일이요 불의의 떡을 먹는 일’로 비유합니다(잠4:19). 그러나 ‘그런 탐심이 가져다 주는 행위의 열매로(잠1:31) 자기 생명을 잃을 것이요(잠1:19,32,5:9) 재앙이 있을 것이며 근심과 슬픔이 있을 것이고(잠1:27), 결국 도둑한 것들은 타인의 것이 된다’고 경고합니다(잠5:10).

따라서 이런 자들을 접근 말고(잠4:15,5:8) 처음부터 거절하라(잠1:15)고 권고합니다. 특별히 잠언 기자는 주릴 때에도 도둑질하지 않도록 주의시킵니다(잠6:30). 도둑질의 손해 배상은 7배며, 모든 재산이 손해받는 사실로 경고합니다(잠6:30-31). 심지어 자녀가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 하는 것도 도둑인 사실을 경고합니다(잠28:24). 이런 구절들도 잠언서는 신론적 이해, 곧 하나님 없이 해석하지 않도록 요구합니다. 그 이유로는 하나님 앞에서 신자의 양심이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것이고, 하나님의 속성을 얻은 것이며, 하나님의 속성, 혹은 품성에 참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적과 짝한 자가 자기 영혼을 미워한 자인 것은 자신을 속이기 때문입니다(잠29:24). 결국 도적질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취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것이고, 모든 때와 일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잠언은 이런 잘못된 길에서의 삶은 하나님 경외의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뢰하라 네 명철에 의지하지 말라**’고 교훈합니다(잠3:5). 그러므로 잠언에서 ‘**최종적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결론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는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요 기록하신 자를 아는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잠8:13, 9:8). 결국 ‘**이 지혜가 보화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잠2:4,3:13-15,4:7,8:10-11,16:16). 우리는 이런 복된 인식이 솔로몬보다는 다윗에게서 왔다고 보아야 합니다(잠4:4).

어떻든 잠언은 ‘그 지혜만이 사람의 생명이요(잠4:13,6:23) 그 지혜가 영혼의 생명이며(잠3:22) 그 지혜가 생명나무라’고 선언하였습니다(잠3:18). 또 ‘사람이 지혜를 부지런히 구하고 기다릴 것’을 말합니다(잠1:28,2:2-5,8:17,34)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는 스스로 얻지 못하고 은총으로만 얻게 되겠습니다(잠8:35). 즉 주께서 뜻하셔서 만나시기를 원하실 때(잠1:28) 주의 신이 그 사람에게 부어져서 주의 말씀을 보이시며(잠1:23) 그때 비로써 하나님을 알게 된다고 하였습니다(잠2:5). 그러므로 지혜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분복으로서 양약의 치료제(잠3:8)이며, 영광(잠3:35,4:9)이요, 평강이며(잠3:17,24) 기쁨을 줍니다(잠2:10-12,3:13).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주신 자, 곧 하나님의 은총의 의지라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주를 아는 지혜에서 나오는 주 경외에는 장수와 부귀가 있습니다(잠3:9-10, 16-18). 결국 이런 내용들은 산상보훈과도 연결되는데, 산상보훈에서도 율법을 제시하면서 연이어서 기도가 나오는 것은 성경 전체와 이런 내용들이 배경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3) 이웃 사랑의 구체화된 명령 중에 또 하나는 ‘간음하지 말라’ 입니다.

특별히 이런 경고는 이방 여인들의 말(잠7:14-21)에 빠져서 마음에 색을 탐하지 말라(잠6:24-25) 는 것인데, 이런 말씀들은 물론 매춘 행위를 금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여인들은 귀한 생명을 사냥하는 것과(잠6:26) 소가 푸주간, 곧 죽음으로 맥진해 가는 것과,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잠7:22), 새가 죽음을 재촉하여 빨리 사냥꾼이 설치해 놓은 그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잠7:23).

또 그 집은 음부의 길이요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것과 같다고도 하였습니다(잠7:27) 사람이 그런 행위로 인하여 재산을 탕진하는 것이요, 옷이 탈줄 모르고 불을 품에 품는 것과 같고 맨발로 숯불을 밟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잠6:27). 잠언 기자는 이렇게 실제적인 간음 뿐 아니라 마음으로 간음하는 죄까지를 지적하면서 무릇 남의 아내를 탐하거나 통간하는 자도 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더구나 더욱 더 강하게 그 여인을 만지기만 해도 죄가 있다고 하였습니다(잠6:29). 그로 인해 자기 영혼의 망함과 상함과 능욕과 수치를 씻을 수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돈이나 수많은 재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는 큰 보응을 받는다고까지 경고하였습니다(잠6:34-35). 또 잠언서에서는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잠31:3).

(4) 이웃 사랑의 핵심 명령은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증거 하지 말라’ 입니다.

이웃에 대해 거짓증거를 경계하라는 교훈도 성경전체인 십계명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너는 까닭 없이 네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네 입술을 속이지 말라(잠24:28), 그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 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살이요(잠25:18), 궤를을 말함(잠12:17)이 칼로 상해함 같이 함부로 말한다(잠12:18) 가 있습니다. 또한 송사에 첫 사람인 원고와 그의 이웃인 피고가 있는 것은 이와 같은 거짓증거를 방지하는 것이요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습니다(잠18:17). 그러나 거짓말을 아니하는(잠14:5) 신실한 증인으로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덕은 병어리와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해서 입을 열어 돕는 것이다(잠31:8)’ 라고 하였습니다.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남의 재산을 탐하지 말라 와 같은 교훈으로는 역시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잠22:28)는 교훈이 있습니다. 옛 지계석을 옮김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신 규범, 곧 율법을 지키는 것, 곧 모든 세대를 향한 교훈의 일환으로 친척이나 남의 토지를 침범하는 것이었습니다(잠23:10).

8. 잠언에서는 구제와 이웃 사랑에 대한 관련성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1) 솔로몬이 이미 말하는 이 사회는 빈부의 격차로 인한 부패들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또한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와의 의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갈등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같이 가난한 자를 삼키며 궁핍한 자를 땅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잠30:14). 또 솔로몬은 “**가난한 자는 형제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친구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고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지느니라**”고 말하였습니다(잠19:7). 이런 빈부 격차가 이스라엘이 뿌리를 두고 있는 가족관계와 인척관계를 파괴시킵니다. 더군다나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를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폭우”에 비유하여(잠28:3) 실제 삶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아주 각박한 사회를 드러내 줍니다. 이런 상황의 발생 원인은 모두 빈부격차로 생긴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었는데, 그 말씀이 매우 구체적으로 선언되었습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잠14:21)는 말씀에도 하나님이 내신 진정한 구제책의 구체성이 나타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니라**”(잠11:25) 에서도 주를 모본한 구제가 풍족으로, 윤택이 윤택으로 연계됩니다. 그러나 이런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구제하는 것은 특별한 원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는 삶과 창조의 원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의 교훈들은 모세오경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 확실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무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경애하는 것이니라”(잠14:31)에서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내신 가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에 권위의 성격이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회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무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자니라”(잠17:5)는 말씀은 그가 누구이든지간에 각 사람마다 마음의 문제에까지 하나님이 반듯이 심판하신다는 선언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요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잠19:17)는 하나님이 빚진 것으로 여기시고 갚으신다 입니다. 특별히 전도서 9장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인과 원리가 되어서 실행된 그 일을 하나님이 이미 받으셨다는 사실로서 작은 일에서도 하나님의 격려가 있으신다는 사실이 말씀됩니다.

(2) 한편 이런 시대를 통해 다른 양상의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시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이 더욱 더 가정과 사회에서 가치가 있고 유익한가에 대한 것입니다. 즉 그것은 미움과 다툼보다 가난하게 사는 것이 더 낫다는 실제 삶에 대한 것입니다. 결국 마음이 가난한 자의 삶의 형태가 실제 생활에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잠15:17)는 말씀에서도 초점은 하나님 경외와 이웃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 하는 것이 육선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잠17:1)는 말씀에서도 무엇이 화목이며 무엇이 만족인가?를 교훈합니다. 잠언서에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 더욱 더 깊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결국 앞에서 말한 그런 다툼의 원인은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인가?입니다. 그 대답은 미움(잠10:12)과 교만(잠13:10)에 있다고 말씀하고 그 반대도 소개합니다. 물론 다툼을 그치게 하는 방법으로는 제비뽑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잠18:18). 이와 같이 제비를 뽑아서 해결하는 방법은 단순히 다툼이 일어났을 때에, 그 다툼을 그치게 하기 위해서 쓰여지는 하나의 방법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한 자들 사이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이나 싸움을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이 방법으로 질서화 해야 할 사실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다툼에 대해 교훈하는 것은 사실에 있어서 그 근본 원인에 대한 것입니다. 그 원인이 미움과 교만에 있다고 하더라도 다툼을 좋아하는 사람은 죄의 열매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말인데(잠17:19), 이들이 야말로 삶의 지혜에서 피해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의 근본에 미움, 교만 등 죄의 성향이 있기에 다툼이 생긴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3)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라(잠24:11). 누구나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17:13)가 경고입니다.

9. 잠언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극치인 원수 사랑까지 말합니다.

(1) ‘네 원수가 주리거든(식물을)먹이고 목마르거든(물을) 마시우라’(잠25:21)는 말씀에서는 그 시대를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원수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존재케 하신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그 사람을 두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피해가 올 게 예상되어도 사랑의 대상이요, 존재가치를 인정해야 할 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일은 편 숯불을 그 원수의 머리에 놓은 것과 같은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주께서 기뻐하셔서 주님자신으로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은 바울이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에 인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내용을 다른 표현의 말씀으로는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 원수가 엎드러질 때 기뻐하지 말라고 하고 결과까지 말씀 하였습니다(잠24:17-18).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만 살고 개의치 말라(16절)에 잇대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저 봐주고 안쓰러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바울이 신명기 32장 35절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고 해석하였는데 이 말씀에 기초한 말씀이 잠언에도 나옵니다. “너는 그가 네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 행한대로 갚겠다 말하지 말지어다”(잠24:29, cf 신32:35, 롬12:19)는 오직 하나님만이 일하시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같은 내용에 해당된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은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17:13)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뜻을 따라서 그 사람에게 좋은 일만 하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긴 싸움의 사람인 셈인데, 그리스도인들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상의 짧은 생애 안에서도 넓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가 악인들의 변화무쌍한 도전에서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신자이라면 하나님의 넓으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믿음의 실상인 것입니다.

(2) 이와 같은 원수 사랑의 배경에는 다른 사람의 죄나 허물을 용서해 주라는 오래된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애와 용서의 모범은 요셉이 자기 형제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용서하면서 인애하는 데서부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넓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창50:17). 비록 죄를 숨기는 사람은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였을지라도 그러나 죄를 자복하여 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잠28:13)고 말씀하였습니다. 이렇게 잠언에는 죄 자체와 악인에 대해서 강한 정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하는 인간 자체에 대해서 사랑을 교훈하여서 용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모세오경에서 보여 주시는 엄격한 징벌과는 크게 변화된 모습입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잠19:11) 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잠10:12) 와 ‘사랑을 구하는 자는 허물을 덮어준다’(잠17:9) 등의 말씀이 있는데 사랑이 나타나는 행위의 발원은 하나님 쪽이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있는 것이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몫으로 있다는 것이요,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 자신으로의 상이라는 것입니다.

10. 잠언은 5계명의 일부인 가정에 대해서와 기타 신체의 구조를 통해서 교훈합니다.

(1) 잠언에서 가정의 권위는 주의 뜻인 아버지의 명령과 어미의 법에 의해 상징됩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하는 일은 명령을 지키고 법을 떠나지 않는 일입니다(잠6:20). 여호와와 법처럼 부모의 교훈도 항상 마음에 새기고 목에 매라고 교훈합니다(잠6:21). 왜 그런 교훈이 필요한가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식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교훈은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것이 마치 등불 같고 빛과 같기 때문이며, 또 그 교훈으로 인하여 훈계한 책망이 생명의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잠6:22-23).

그러므로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이 지혜가 본성과 체질이 되어서 늙어도 그러한 교훈을 떠나지 않도록 마땅히 행할 길을 자기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잠22:6). 심지어는 채찍으로 그 아이들을 때려서라도 아이들을 훈계해야 합니다(잠23:13). 이는 징계하는 채찍이 미련한 것을 멀리하게 하고(잠22:15)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며(잠29:15) 그 채찍으로 그 영혼을 음부에서 건져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잠23:14). 그러므로 초달을 차마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는게 주의 교훈입니다(잠13:24). 자식이 임의로 하도록 그냥 버려두면 그 자식은 필경 어미를 욕되게 합니다(잠29:15). 사실이 그러하기에 자기 자식을 참으로 사랑하는 자는 근심히 경계합니다(잠13:24). 그렇게 징계하면 그 자식이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잠29:17).

가정의 아내에 대한 교훈의 경우는 놀랍게 남편의 시각에서 본 교훈만이 아닙니다. 잠언의 저자가 ‘은총의 여인’은 존경을 얻는다고 말했을 때에도 그 사실에 대조하여 재물을 얻을 근면한 남자를 부각시키고 있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잠11:16). 또 한편으로는 현숙하여 어진 여인이 남편의 면류관이지만 욕을 끼치는 여인은 남편의 뼈의 썩음과 같게 한다고 하였습니다(잠12:4). 이런 시각은 남편이 가정에서 중심이 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잠언 31장 10-31절 말씀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의 경우에는 고대와 현대에서 보는 대로 상당히 가정의 생계를 아내가 책임을 지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잠언에서 그려주고 있는 여성상은 아주 강하고 진취적이며 활동적입니다. 첫째로 현숙한 여인은 신실하고 근면합니다. 남편의 마음이 그를 믿을 수 있는 신실성이 있고 새벽에 일어나서 식사를 준비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계속 일을 만들어 손을 쉬지 않게 하고 부지런하고 근면합니다. 둘째로 현숙한 여인은 강인합니다. 현숙한 여인은 **‘힘으로 허리를 묶으며 그 팔을 강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셋째로 현숙한 여인은 지혜롭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경우에는 이익이 되는 일을 미리 판단할 줄 알고 있습니다. 넷째로 현숙한 여인은 덕과 인애가 있습니다.

그것은 곤란한 사람들을 찾아서 돕는 일이 그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다섯째로 현숙한 여인은 깨끗하고 단정합니다. 그것은 영욕이 성결하여 건실하고 아름답다는 표현입니다. 여섯째로 현숙한 여인은 경건합니다. 잠언은 이런 특성을 여인의 육신적인 아름답고 고운 면보다 더 크게 가치화 합니다.

이런 면은 솔로몬이 많은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기준과 대립된 것 같습니다. 솔로몬으로서는 여인에

대해 탕아의 관점을 겨우 피하는 정도로써 시가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십계명을 마음의 법으로서는 강하게 접근하고 있는 게 사실로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의 감정에서 완전히 벗어난 성격이 아닙니다. 이런 점은 솔로몬의 약점일 수 있고, 또 이런 점에서 솔로몬은 실패자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많은 사람들의 생애에서 흔히 보는 것처럼 지나치게 늦은 발견일수 있겠습니다.

그 집안은 그 아이를 보면 알듯이 아이들은 그들의 동작으로 자기들의 품행에서 정결하고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는데, 아이들의 동작에 품행이 담깁니다(잠20:11). 자녀들은 앞에서 언급한 기초도리 그대로 아버지의 말을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며(잠23:22) 부모를 즐겁게 해드려야 합니다(잠23:25). 그러나 자식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은 자식이 의롭고 지혜로움 입니다(잠23:23, 26) 가정에 속한 자녀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도 지혜롭게 행하는 길입니다(잠28:7). 자녀들은 열심히 듣고 지혜를 얻어 자신의 마음을 정도로 인도해야 합니다(잠23:19). 자식들은 좋은 것을 먹으면서 스스로 잘 자라나야 할 사실을 교훈합니다(잠24:13, 14)

(2) 잠언서가 신체의 구조를 통해 교훈할 때에는 특별히 손과 발에 대해 말씀합니다. 손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일이 손으로 하는 일로 대표되고 있습니다(잠6:17). 발에 대해서 말할 때 발이 교훈에 사용되는 것은 그 발에 의해서 악한 길을 빨리 나아가는 사실을 경고하는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잠4:26-27, 7:22-23). 그래서 생의 길을 상징하는(잠4:26) 발은 적정성 혹은 적합성의 원리, 즉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하는 엄밀한 성격이 중요합니다(잠4:27).

(3) 잠언서는 혀와 입과 입술과 말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다른 기관과 같이 입도 잘 사용하면 생명 샘(잠10:11)이요 생명나무(잠15:4)이지만, 입을 미련하게(잠10:10) 잘못 사용하면 독을 머금는다고 경고합니다(잠10:11).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은 더 귀한 보배이지만(잠20:15), 사람들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는 경우가 있고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습니다(잠18:21).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공허한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를 뿐입니다(잠14:23). 따라서 신자는 입에서 궤환을 버리고 입술에서 사곡을 멀리해야 합니다(잠4:24).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의 영혼(생명)을 환난에서 보존하는 것이요(잠12:19, 13:3, 21:23), 말로 의를 나타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잠12:17, 15:1, 4, 23, 16:24, 18:21, 24, 26, 25:11). 그러나 말의 잘못 사용은 타인의 노를 격동시키고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잠15:1-2,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순한 대답은 상대방의 분노를 쉬게 합니다(잠15:1).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람이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고(잠15:23)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며(잠24:26)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와 같고 청종하는 귀에 금귀고리와 정금장식 같습니다(잠25:11-12). 그렇게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됩니다(잠16:24). 그렇게 일찍부터 말의 의학적 효과를 깨달았던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여호와가 미워하시는 6, 7가지 죄악 중에 속한 하나가 거짓된 혀입니다(잠6:17). 귀로 듣고 이웃을 망하게 하는 일이 있는데, 악을 행하는 자는 궤사한 입술의 말을 잘 듣고, 거짓말 하려는 자가 그가 대하는 악한 자의 혀에 귀를 기울입니다(잠17:4). 그런 말에 대한 교훈들은 기본적으로 십계명의 9계명과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적정과 절도의 원리에 어긋나는 침묵도 악한 일이 됩니다(잠16:30). 이런 일들은 솔로몬과 역대 왕들이 어느 정도 수행했던 과업이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도둑과 짝하는 일이 그 은밀성 때문에 거짓의 기반이고 자신의 영혼을 망치는 일이 되는 것은 거짓을 숨기는 일에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잠29:24, 10:2)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입술을 억제하고 다른 사람의 비밀을 숨기는 것이 지혜와 영혼의 신실성과 덕스러움이 되고 있습니다(잠10:19, 11:13, 20:19). 그 이유는 어떤 사람에게 말이 많으면 과실이 그치지 않기 때문입니다(잠10:19). 또 한편으로 헌담 하는 자는 두루 다니며 남의 비밀을 누설합니다(잠11:13, 20:19). 잠언은 그런 자와는 사귀지 말아야 할 사실을 권하고 있습니다(잠20:19).

형제 사이를 헐문하는 자도 여호와가 미워하시는 6, 7 죄 중에 속합니다(잠6:19).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내는 책망이 숨은 사랑보다 더 낫고(잠27:5-6상)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더 사랑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잠28:23) 이런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패망을 자처하는 사람이 됩니다(잠29:1). 또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기는 사람입니다(잠15:32).

이런 교훈들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습니다(잠15:31-33). 또한 유책을 싫어하는 사람은 죽을 것이라(잠15:10)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책을 달게 받는 사람은 지식을 얻는다고도 하였습니다(잠15:32).

따라서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을 교훈합니다(잠23:12-19). 4) 잠언서에서는 사람의 눈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눈에도 선한 눈이 있습니다. 이런 눈을 가진 자가 복받는다 함은 선한 눈이 선행의 원인이기 때문입니다(잠22:9). 그러나 눈짓하는 일이 근심을 끼치는 일도 있습니다(잠10:10). 그러므로 눈은 바로 보는 것이 중요하고 눈꺼풀은 곧게 살피야 합니다(잠4:25). 이런 눈의 안목은 정로로 행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잠4:26-27). 교만은 눈에도 나타나는데 여호와가 미워하시는 6, 7가지 죄 중 하나입니다(잠6:17). 여기서도 종합적인 체계가 나타납니다(잠6:16-19).

반면 아비를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눈과 눈빛도 그 결과까지 나타나 있습니다(잠30:17). 마음이 망령된 것을 발할 때에는 눈이 괴이한 것을 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잠23:3). 그러기에 잠언에서는 사람의 눈이 그만큼 심히 높기도 하고(잠30:13), 또 사람의 눈은 결코 만족할 줄 모를 만큼 깊다고 하였습니다(잠27:20). 이와 같은 짧은 말씀 안에 그 당시 사회악이 고발되고 있고(잠30:10-14), 하나님이 생략된 심령과 행위가 연계된 죄악상이 경고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일에서 소임을 다 하게 하십니다(잠27:23-27). 그런 점에서 아굴의 기도는 하나님 경외의 삶을 소원한 것입니다(잠30:7-9). 특별히 9절 말씀은 여호와 경외의 극치인 것입니다.

11. 잠언은 특별히 마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1) 주와 주의 뜻을 품은 마음은 잠언 기자에게 생명의 근원이요 누림입니다(잠4:23). 마음이 생명의 근원인 사실은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성격입니다(잠4:21-23). 이렇게 사람의 마음이 부정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그 기관이 악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역시 잠언은 마음을 정하게 하거나 그 죄를 깨끗케 할 수 없다고 표현합니다(잠20:9).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잠16:32)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하였을 때, 마음을 다스리는 자란 예를 들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잠15:18)를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이 명철하고 슬기롭고 주의 영광에 참여자입니다(잠15:18, 19:11, 29:8). 이들과 대조를 이루는 어리석은 자는 노하기를 속히 하고 마음이 조급한 자입니다.

(2) 잠언은 마음의 즐거움과 마음의 고통이며, 마음의 근심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양약이지만, 마음의 근심은 심령(영혼)을 상하게 하고(잠15:13) 그 근심이 사람을 번뇌케 하며(잠12:25) 뼈를 마르게 합니다(잠17:22). 사람의 마음에는 웃을 때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 끝에도 근심이 있습니다(잠14:13). 그러나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 못합니다(잠14:10). 잠언은 사람의 교만에 대해서도 말합니다. 사람의 교만은 마음의 교만입니다(잠16:18-19, 18:12). 경우에 따라서는 상징적으로 교만은 ‘눈이 높은 자’ ‘목이 곧은 자’ 라고 표현합니다. 잠언에서는 교만한 자나 거만(자랑)하는 것이나 조롱하는 것을 포함한 자이거나, 자랑하는 자는 같은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잠언에서 이에 반대되는 자는 겸손한 자로 표현되었습니다. 그 겸손이라는 것도 역시 마음을 낮추는 것입니다(잠16:20, 29:23). 잠언이 교훈하고 있는 점은 그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의 비교입니다.

사회나 이웃 간에 교만한 자나 거만한 자의 중요한 현상으로 다툼과 싸움이 있고 수욕, 부끄럼, 치욕(잠11:2, 22:10)이 있고 성음까지 소란케 하는 일(잠29:8)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자들은 의도적으로 무례하고(잠21:24) 그런 자들은 권징 받기를 좋아하지 않으며(잠15:12), 그런 자들은 지혜 있는 자에게 가지도 아니합니다(잠15:12). 그러기에 계명이 가르치듯이 결국 교만한 자나 거만한 자는 스스로 손해를 봅니다. 교만한자는 지혜를 구하나 얻지 못하고(잠14:6)영예보다 오히려 낮아지고(잠29:23)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고(잠24:7) 패망하거나 멸망합니다(잠15:25, 16:18, 18:11, 29:7). 교만 자체가 악한 것과 같은 죄로써(잠21:4) 여호와와 미워하심을 받습니다(잠15:25). 결국 잠언은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게 유익되고 아무리 좋은 것도 교만한 자와 함께 함은 유익이 되지 못함을 교훈합니다(잠16:20).

12. 잠언에서는 생활의 지혜에 대하여 폭넓게 진술합니다.

(1) 잠언의 지혜에는 상관이 없는 다툼에 끼여들지 말라는 권고도 있습니다. 상관없는 싸움에 끼어드는 것은 마치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습니다(잠26:17). 물론 다투게 되는 원인은 이웃에 대한 미움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잠10:12) 마음이 급하여(잠25:8) 분을 내는 사람이 다툼을 일으키며(잠15:18, 29:22), 그런 일은 우유를 저으면 뿔뿔이 되는 것과 그 원리가 같다고 하였습니다(잠30:32-33). 특별히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 떨어지는 물방울 같고 바람을 제어하거나 손으로 기름을 움키는 것과 같이 막을 길이 없기(잠19:13, 27:15,16) 에 부녀들에게 이런 다툼의 원인이 되는 탐심이(잠28:25) 미움이 없어야 할 사실이 실제로 교훈됩니다. 잠언은 말장이나 다툼을 좋아하는 자를 피 할 것도 교훈합니다(잠17:19, 26:20-26) 그러나 다투기 시작할 때 바로 그쳐야 싸움이 생기지 않는다고 권고 합니다(잠17:14). 잠언에서는 다투는 때에도 아주 주의 할 사실을 언급하였습니다. 그것은 변론을 하되 남의 은밀한 일을 말하지 말라고 권고합니다(잠25:9-10).

(2) 또 잠언의 지혜에는 이웃 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는 권고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잠25:17) 라는 권고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거둬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것과 같습니다(잠17:9).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잠27:14). 이웃에게 아침하는 것을 그 이웃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으로도 말합니다(잠29:5).

(3) 잠언에는 다른 사람의 손을 잡고 그 이웃 앞으로 보증이 되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다(잠17:18, 22:26)는 주의와 경고도 함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지혜없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삶을 논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한계를 지키지 않을 때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으로 허망한 빛을 지지말라는 주의와 경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정하신 한계를 스스로 지키라는 것이지 하나님 품성을 닮은 신자가 하나님처럼 주는 일이 전적으로 거절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웃관계가 잘못된 이유 몇 가지와 거기서 헤어나는 방식도 제시됩니다.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히며 네 입의 말로 인해 잡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잠6:1-5). 또 그 이유로는 **“너가 값을 길이 없으면 네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고”**(잠22:26-27), 또한 그 결과로는 **“그 몸을 불로 잡힐 것이기”** 때문입니다(잠20:16, 27:13). 그러나 일단 네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먼저 겸손히 네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네 눈으로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손에서 벗어나는 것같이 새가 그물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입니다(잠6:3-5)

(4) 잠언의 지혜에는 그 외에도 진수성찬을 탐하는 일과 같은 종류의 것으로서 대접받기를 좋아하지 말라는 주의와 경고도 함께 있습니다(잠23:1-3,6-7). 대접이나 격식보다 상대방 사고방식을 관찰하고 사귀라는 권고입니다(잠23:1,7,8). 다른 사람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말며 외인으로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말지니라(잠27:1-2)는 등의 말씀도 같은 맥락입니다.

13. 끝으로 잠언에는 술에 대해서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있습니다.

힘의 낭비와 포도주나 독주가 왕, 곧 주권자에게 마땅치 않다고 합니다(잠31:1-4). 그 이유는 술을 마시다가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모든 간곤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잠31:5). 그런 이유에서만이 아니라 포도주는 그 사람을 거만하게 하고, 독주는 그 사람을 떠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하라고 교훈합니다(잠20:1). 술을 마시면 스스로 말하기를 나를 때려도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해도 내게 감각이 없다고 하며 다시 꺾까봐 두려워하여 다시 찾는다고 경고하였습니다(잠23:35). 당연히 술 취하는 탐식하며 잠자기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여 질 것입니다(잠23:21). 따라서 포도주를 보지도 말고(잠23:31). 술을 즐기는 자와 사귀지도 말라(잠23:20). 다만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근심하는 자에게 주라는 것은 그가 마시고 그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고 그 고통을 기억지 아니하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잠31:6-7).

또 잠언서는 각종 좋지 못한 것이 어디서 오느냐를 묻습니다(잠23:29-30).또 술의 현란함과 수용성에 이어 강력한 거절이 있습니다(잠23:31).또 술의 중독성과 마비성에 관해서도 잘 기술되었습니다(잠23:35-).신약 성경에는 성령 충만함과 관련하여 진술됩니다(엡5:15-21).